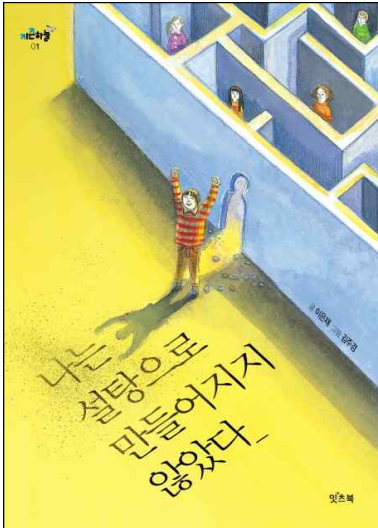




나는 설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은재

청구기호 아813.7 이68ㄴ

‘나는 설탕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약한 존재가 아니다.’

성장통을 앓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보내는 응원!

엄마와 아빠가 결혼을 하고 기적처럼 태어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기적!’ 주인공 기적이는 자신에 대한 엄마의 지나친 기대와 공부 스트레스, 치매에 걸린 할머니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사춘기 소년입니다.

기적이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그것을 대하는 생각과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나와 가족, 학교, 선생님, 자기주도적인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줄 것입니다.



책 속에서 만나는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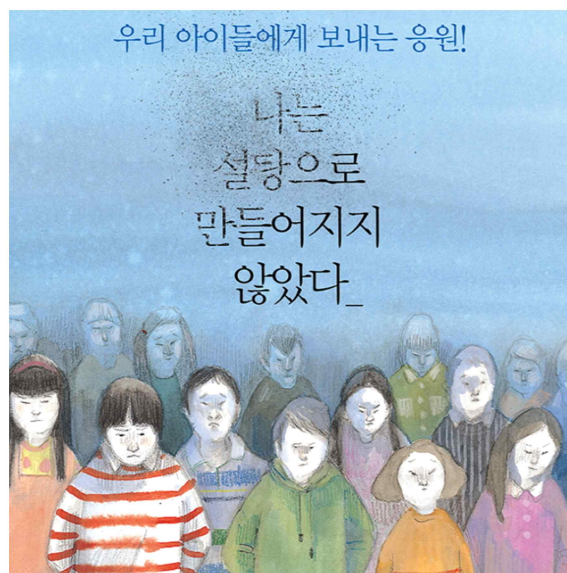
<본문 81-82쪽>

“나이는 선생님이 제일 많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제일 어른다워야 하는 거 아니가요? 우리보다 바이크에 더 신경 쓰고, 다른 사람 생각은 하지도 않고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게 어른다운 거예요? 선생님도 나쁜 어른이면서 왜 저만 자꾸 나쁘다고.....”

‘까짓것, 나쁜 애가 뭐 별거야? 이상한 애 취급 받으면서 무시당하느니 그냥 할 말 다 하는 나쁜 애로 살지 뭐.’
나는 선생님을 빤히 쳐다보았다. 선생님은 얼이 빠진 얼굴이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입을 삐죽대면서 아이들을 슬쩍 돌아보았다. 다들 좀 의외라는 표정이었다.
‘자, 이상한 애가 진짜로 이상해지는 걸 보는 소감들이 어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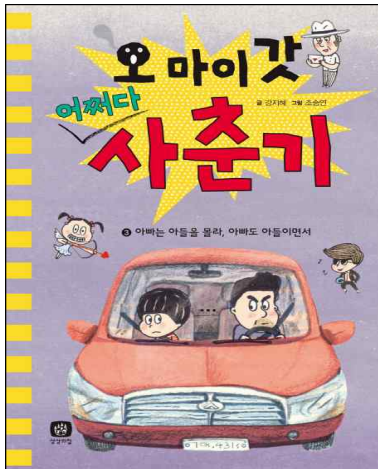
<본문 183쪽>



“자, 난 준비 됐으니까 얼마든지 덤벼!”

나는 용기적이고, 기적 같은 내 진짜 삶은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바로 지금, 언제나 기적 같은 이 순간에.....

- 출처 예스24 (<https://www.yes24.com>)



오 마이갓 어쩌다 사춘기

강지혜

청구기호 아813.8 강79ㅇ

11세 소년의 눈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



“아빠, 안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할 거예요!”

왜 딸바보 아빠는 있어도 아들바보 아빠는 없을까?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색하고 불편해지는 관계가 있다.

바로 아빠와 아들.

하로는 눈만 마주치면 장래희망을 묻는 아빠가 괴롭다. 꿈이 없는 게 아니라 찾고 있을 뿐인데... 아빠는 하로의 말은 무시하고 자기 말만 한다.

아빠와 갈등하던 하로는 어느 날, 아빠와 자신이 꼭 닮은 점을 발견한다. 그것은 두 사람이 친구바보라는 사실! 하로는 아빠가 정말 의리 있는 진짜 사나이이며, 자신이 그런 아빠를 몹시 자랑스러워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고 아빠에 대한 하로의 감정과 하로에 대한 아빠의 감정이 사랑 이상으로 더 크고 따뜻하고 단단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책 속으로



오 마이 갓!

아빠의 친구라는 코치 선생님은 비 같은 것은 신경도 안 쓰나 보다.

우리는 비를 맞으며 운동장을 돌고 패스 연습을 했다.

코치 선생님은 자꾸 박지성 같은 선수가 되려면 폭풍우가 몰아쳐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슬프게도 폭풍우는커녕 비가 점점 그쳤다.

한 시간 내내 아빠는 내가 연습하는 걸 가만히 서서 구경했다.

나는 아빠가 있는 쪽은 일부러 쳐다도 보지 않았다.

정말 내가 화가 단단히 났다는 걸 알려 주고 싶었다.

오늘의 생각

축구 교실은 나랑 안 맞는다. 자꾸 박지성 이야기를 하는 코치 선생님도 나랑 안 맞는다. 아니, 아빠야말로 진짜 나랑 안 맞는다.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아빠는 내가 꿈이 없어서 답답해?”

내 말에 아빠가 조금 당황한 것 같았다.

“꿈은 없어지는 게 아니래. 계속 찾는 거지. 할아버지가 그랬어.”

“그럼 꿈은 찾는 거다. 하로야, 조금할 거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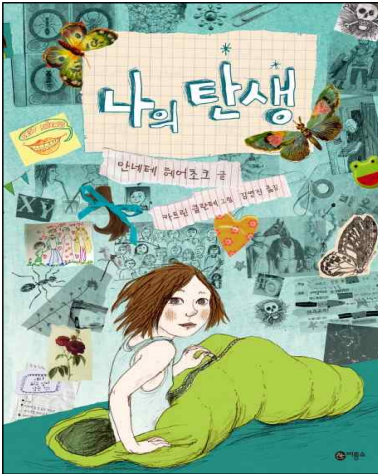
내 말에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의 생각

사람들 사이에는 섬이 있다. 그리고 그 섬에는 꿈이 모여 있다. 나는 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찾는 사람이다. 새로운 꿈을 찾아 섬으로 떠나는 그런 사람!

<본문 글 중>

- 출처 알라딘 (<https://www.aladi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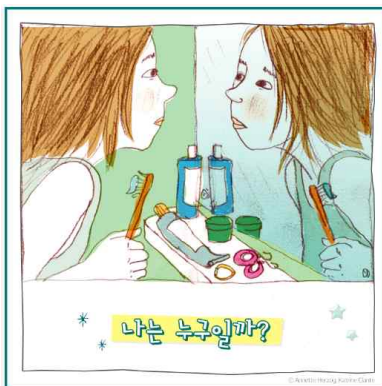
나의 탄생

안네테 헤어초크

청구기호 아853 헤63나

나의 탄생에 대한 온갖 질문이 담긴

열두 살 비올라의 우주에서 하나뿐인 다이어리



2차 성장을 겪기 시작한 십 대 여자아이가 마주한 ‘나’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들을 시선을 사로잡는 구성과 개성적인 그림으로 담아냈다.

“나는 존재하지도 않았어.

느끼지도, 알지도 못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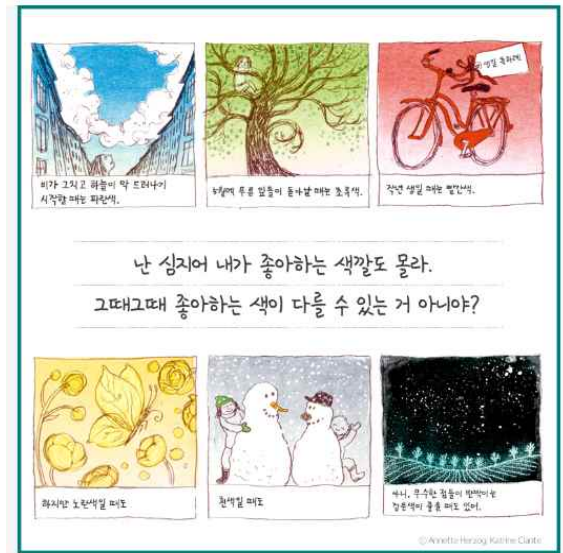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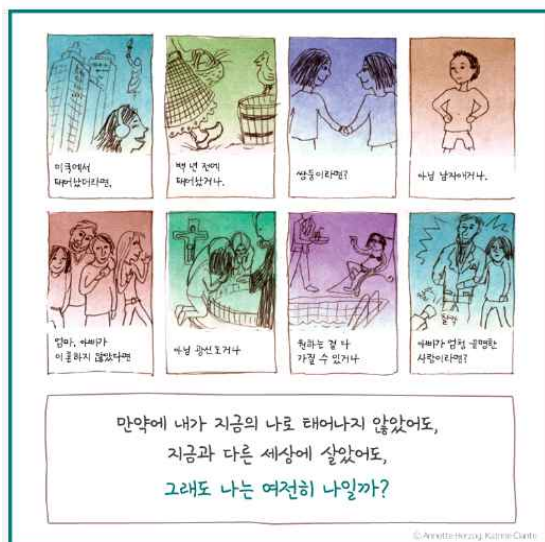
비올라의 자유롭고 독창적인 ‘나’ 탐구생활

자기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질문을 만화, 콜라주 등 자유로운 기법과 짧은 챕터 구성으로 녹여 내, 주인공 비올라와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며 읽을 수 있다.



책 속으로

1학년 때는 5학년 언니들만 봐도 어른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하지만 막상 5학년이 되고 보니 조금도
어른 같지 않아.
아니, 오히려 정반대야! 뭐가 뭔지,
모든게 의문투성이야. 난 대체 누굴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걸 나만 모르는
것 같아.



거대한 외계인들이 존재한다면
그 외계인들 눈에는 우리 인간들이 아주 작고
개미들처럼 하찮아 보이겠지?
지구를 뱅뱅 차면서 축구를 할테고?
우리를 발로 마구 밟겠지?
광활하기 짝이 없는 우주! 무수히 많은 별들.
그리고 그 사이에 가로놓인 수천 광년이라는 시간
저기 위에서 보면 우리들 삶은 아무것도 아닐거야.
우리가 고민이랍시고 하는 것들도 우습기 짝이
없을 테고

아빠 나만 했을 때 아빠 자신이 좋았어?"
"아빠 수줍음도 많이 타고 자신감도 없는
편이었어."
"그럼 지금은? 마음에 들어?"
"최선을 다했으면 결과랑 상관없이 만족하는
법을 배웠어."
"흠...."

<본문 글 중>

- 출처 예스24 (<https://www.yes24.com>)



사춘기라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명랑

청구기호 813.6 이34사

사춘기라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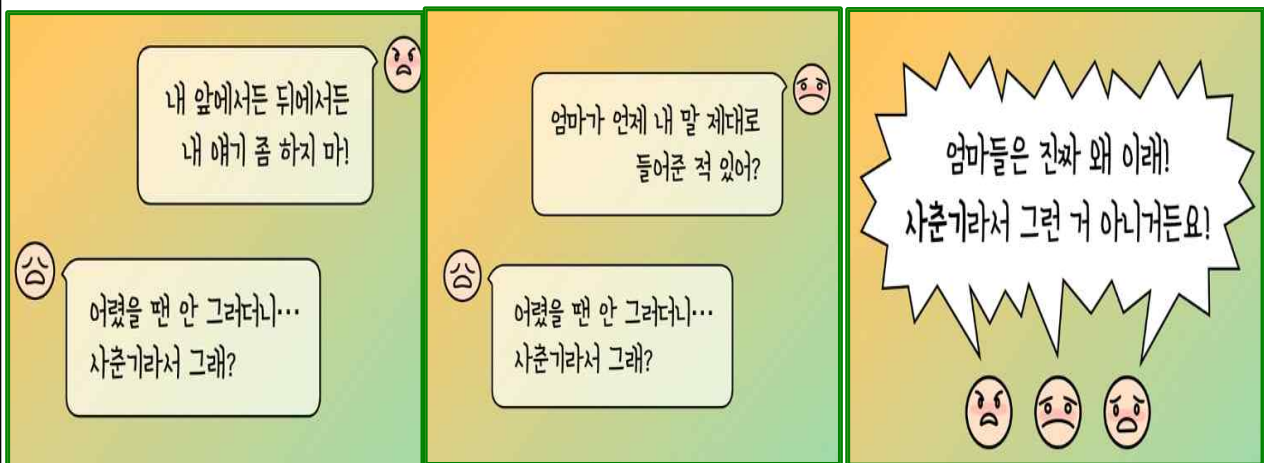
세 명의 주인공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번갈아 들려주면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는 사이사이, 세 명 엄마들의 이야기가 전화 통화 형식으로 펼쳐지면서 사춘기 아들을 키우는 엄마들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마법의 세 단어’

마법의 세 단어 **첫 번째**는 다름 아닌 ‘**오케이**
긍정의 사인인 ‘오케이!’는 **아들의 마음을 열고 대화를 지속하게 한다.**

두 번째 단어인 ‘**노 프라블럼!**’으로 **아들의 마음을 안심시킨다.**

세 번째 단어는 ‘**파이팅!**’을 외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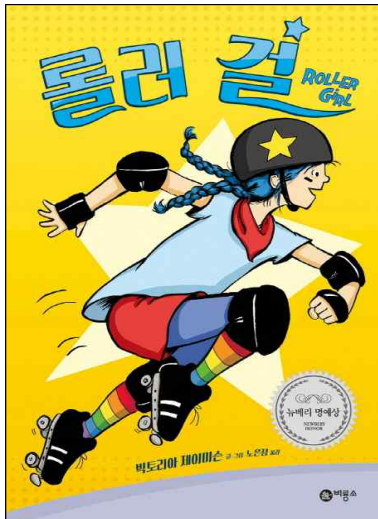
책 속으로

엄마는 왜 그 얘길 또 꺼내는 거야? 그럴 때 내 기분은 어떨 것 같아?
 엄마나 어른들한테는 그저 웃어넘길 일이겠지만 나한테는 이런 얘기가 다 상처라고, 상처!
 “나 안 먹어!”
 나는 쿵 소리가 나게 젓가락을 내려놔다.
 “건우 너,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엄마가 인상을 썼다.
 “제발 내 얘기 좀 꺼내지 마! 칭찬이든 욕이든, 내 앞에서든 뒤에서든 내 얘기는 하지
 도 말라고!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 p.30~31 <건우>

그래, 잘했어! 엄마가 대체 무슨 생각이냐고 물었을 때, 입 다물고 있기를 얼마나 잘
 했냐? 만약 내가 슈퍼히어로가 되겠다는 원대한 꿈에 대해 털어냈다면? 게임은커녕
 욕만 잔뜩 먹었을걸. 생각해 봐, 그동안 어떤 반응이 돌아왔는지. 언제나 똑같았잖아?
 그렇다고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엄마야말로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와
 내 장래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이니까.
 ----p.61 <현상>

- 출처 교보문고 (<https://www.kyobobook.co.kr>)





롤러 걸

빅토리아 제이미슨

청구기호 843 제69ㄴ

성장의 통과역들을 단단하고
당차게 겪어 나가는 열두 살 소녀 이야기



철친이랑 갑자기 떨어진 것 같다.

엄마가 골라 주는 옷은 죄다 마음에 안 든다.

중학교에 가기가 두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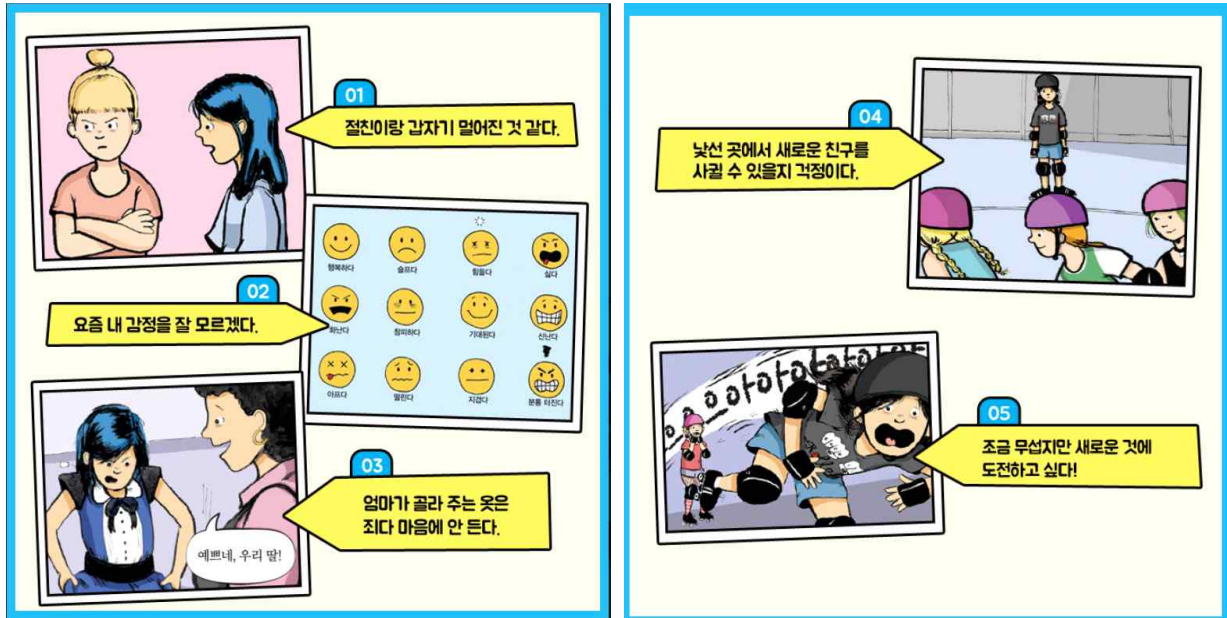
낯선 곳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귄 수 있을지
걱정이다.

조금 무섭지만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다!

“더 굳세게, 더 강하게, 겁내지 말고!”

누구나 겪는 ‘성장의 기복’을 스스로 멍 들고
부딪히며 이겨 나가야 하는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고 유쾌하게 보여 준다.

책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봐.
더 굳세게.
더 강하게.
겁내지 말고!

“나는... 뭐랄까... 이러는 네가 낯설어.”

- 엄마

“헛!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 딸, 애스트리드

이상했어. 우리 반 다른 애들은 전부 특징을 나타내는 별명이 있는데, 나는 왜?

축구 선수 브렌던, 영재 소녀 엘레노어, 떠벌이 시스

...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 아이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그건 '니콜의 절친이었어.

나한테는 '특별한 그것'이 없는 것 같아...

이제는.

- 출처 교보문고 (<https://www.kyobobook.co.kr>)